



일본의 新 NISA, 자산증식을 위한 평생 비과세제도

현안

외국에선?

이 승 주

- 일본은 국민의 재산형성과 자본시장 내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 소액투자 비과세제도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했고, 2024년에는 기존 NISA보다 투자구조를 단순화하고 절세혜택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NISA를 선보임.
- 新 NISA는 대부분 예금·현금에 묶여있는 일본 국민의 자산을 투자로 이동시켜 자산소득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기시다 정부의 '자산소득 배증 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됨. 현재 일본 국민의 약 1/5이 NISA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최근 일본증시의 활황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올해 1월에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등 ISA 활성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힌 바,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개편된 일본의 新 NISA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 시작하며

- 국민의 재산형성과 자본시장 내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에 도입한 일본의 소액투자 비과세제도¹⁾인 NISA는 계좌 수와 가입금액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현재 성인의 1/5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일본 정부는 도입 10년째인 2024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투자구조를 단순화한 新 NISA를 도입함.²⁾
- 최근 우리 정부도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비과세 한도 확대나 세액공제 신설 등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³⁾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新 NISA의 주요 사항과 현황에 대해 살펴봄.

1) 개인투자자 세제 우대제도

2) NHK. (2024.2.13). NISA "成人5人に1人以上利用"投資信託流入1兆3000億円近くに.

3) 이코노미스트. (2024.5.20). '도입?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 전망 속 ISA 관심 고조...투자 전략은.



II. NISA 도입 과정과 현황

1. NISA 도입

- 일본은 노후나 미래 대비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금융자산 제로세대’가 급증하여, 세대 간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음. 또한 경기와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안전한 예금에 묶이는 현상이 나타남. 이에 일본 정부는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NISA를 도입함.⁴⁾
- 영국의 개인저축계좌인 ISA를 모델로 한 일본의 NISA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20.315%의 세금을 일정한 투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제도임.⁵⁾
- NISA는 2014년 1월 1일부터 100만 엔 한도로 NISA 계좌를 통해 신규 취득하는 상장주식, 펀드, ETF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 등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 간 비과세하는 소액투자 세제지원제도로, 저축성 예금에 대한 비과세와 차별되는 제도임.
- 당해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의 일본 거주자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은행, 투자회사 등에서 1인 1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음.
- NISA는 일반 NISA, 적립 NISA, 주니어 NISA로 구분되며, 다음 표와 같이 순차적으로 도입됨. 2024년에 운용이 개시된 新 NISA와 구별하여 일반 NISA와 적립 NISA를 구(旧) NISA 또는 기존 NISA로 지칭함.

< NISA 도입 현황 >

연 도	2014년	2016년	2018년	2024년
세부 유형	구 NISA			新 NISA
	일반 NISA	주니어 NISA	적립 NISA	

- 일본 정부는 2022년 11월, 가계의 금융자산 확대를 목적으로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자산소득 배증(倍增) 플랜’을 발표하고,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NISA 계좌를 5년간 1,700만 개에서 3,400만 개, NISA 매수금액을 28조 엔에서 56조 엔으로 2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힘.⁶⁾

4) 천창민. (2014). ‘일본판 개인저축계좌(ISA) 제도와 현황’. Capital market perspective(Vol.6, No.3)

5) 금융청. 2024.6.10. 인용: <https://www.fsa.go.jp/policy/nisa2/known/index.html>

6) 야후뉴스. (2024.1.17). 2024年、新NISAスタート! NISA口座開設数の推移から見る留意点とは?.

< '자산소득 배증 플랜'의 추진 배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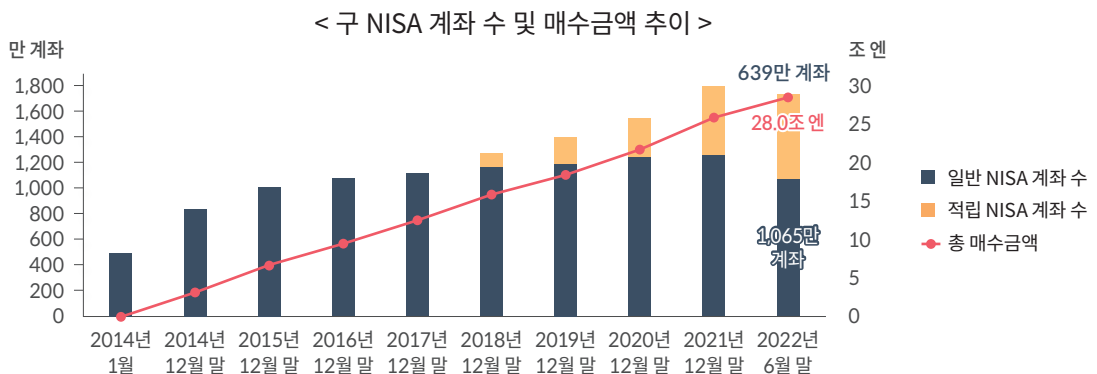
- 일본은 가계 자산의 50% 이상을 예·적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 주식 등의 보유율이 낮음.
- 미국과 영국은 중산층도 주식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 최근 20년간 가계 금융자산이 2~3배 증가했으나 일본은 1.4배 증가에 그치고 있음.
- 일본 중산층이 수익이 큰 자산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을 이끌어 내면, 가계 자금이 기업에 투자되어 기업의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가치가 향상되어 가계 금융자산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성장과 자산소득의 선순환'이 실현됨.

자료: 금융청. (2023.1). 資産所得倍増プランについて.
내각관방. (2022.11). 資産所得倍増プラン.

- 2023년을 끝으로 일반 NISA와 적립 NISA가 종료되고, 주니어 NISA는 폐지됨. 구 NISA의 보유 상품은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新 NISA로 이관하거나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게 됨.

2. NISA 현황

- 금융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을 기준으로 구 NISA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일반 NISA가 695개, 적립 NISA가 597개, 주니어 NISA가 309개임.⁷⁾
- 같은 시기 구 NISA 계좌 수는 2,034만 계좌, 매수금액은 34조 엔에 달함.
-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구 NISA의 계좌와 매수금액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4년에 출시된 新 NISA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7) 금융청. 2024.6.10. 인용: <https://www.fsa.go.jp/policy/nisa/20231222.html>
<https://www.fsa.go.jp/policy/nisa/20230629.html>

- 2023년 9월 말 기준, 일반·적립 NISA 계좌의 연령대별 비율은 40대가 18.9%로 가장 높고, 다음이 50대로 18.3%, 30대 17.5% 순임. 주니어 NISA는 1~5세가 33.6%, 6~10세가 30.6%, 11~15세가 23.5% 비율로 나타남.
- 일반·적립·주니어 NISA 계좌의 상품별 매수금액 비율은 펀드가 59.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뒤를 상장주식 37.6%, ETF⁸⁾ 2.4%, REIT⁹⁾ 0.7%임.
- 일반·적립·주니어 NISA 계좌의 연령대별 매수금액 비율은 60대가 24.2%, 70대가 19.0%, 50대가 17.9%, 40대가 16.0%임.
- 한편, 일본증권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NISA 계좌 신규 개설자의 대다수(적립 NISA 90.9%, 일반 NISA의 52.9% 등)가 투자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¹⁰⁾
- 新 NISA와 관련해서는 가계 진단·상담서비스 기관인 ‘오카네코’ 운영회사가 자사 고객 1,594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新 NISA 인식도 조사 결과 >

- 고객의 86.6%는 新 NISA가 도입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 중 32.5%는 제도의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¹¹⁾
- 新 NISA 이용자 비율은 37.8%, 이용을 검토 중인 비율은 20%, 미이용자 비율은 42.2%임.
- 이용 목적(복수응답)으로 이용자의 69.6%는 ‘여유자금을 늘리기 위해’를 꼽았고, ‘노후자금을 모으기 위해’는 63.5%로 미래의 자금대책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新 NISA 적립투자 이용자의 매월 평균 적립금액은 구 NISA보다 3만 7,273엔 증가한 6만 689엔으로,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산형성에 나서는 일본국민이 늘어나고 있음.
- 新 NISA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까지의 절차가 귀찮아서’가 28.1%, ‘구 NISA와의 차이를 잘 몰라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음’이 24.0%임. 투자·자산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44.7%) 꼽는 것은 ‘자산운용 지식이 없고 방법을 몰라서’로 나타남.

자료: 야후뉴스. (2024.1.17). 新NISAの利用率は約4割 毎月の積立平均金額は60,689円と高め 「余剰資金を増やすため」「老後の資金を貯めるため」との理由が半数以上.

8)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9)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 투자신탁

10) 일본증권업협회. (2023.12). NISA口座開設・利用状況調査結果(2023年9月30日現在)について
금융청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일본증권업협회 자료로 대체함.

11) 야후뉴스. (2024.1.17). 新NISAの利用率は約4割 毎月の積立平均金額は60,689円と高め 「余剰資金を増やすため」「老後の資金を貯めるため」との理由が半数以上.

III. NISA의 주요 개편사항과 특징

1. 구 NISA의 개편 이유

- 구 NISA는 일반 NISA, 적립 NISA, 주니어 NISA의 세 종류로 구분됨.
 - 일반 NISA와 적립 NISA는 성인이 가입 대상이며, 둘 중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음. 비과세 보유기간은 최대 5년 또는 20년이며, 연간 투자금액 40만 엔 또는 120만 엔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최대 비과세 보유한도는 600만 엔 또는 800만 엔임.

< 구 NISA 상세(적립 NISA과 일반 NISA 병용 불가) >

구 분	적립 NISA	일반 NISA	주니어 NISA
대상자	18세 이상 일본 거주자	18세 이상 일본 거주자	0~17세 일본 거주자
비과세 보유기간	최대 20년	최대 5년	최대 5년
연간 투자 한도	40만 엔	120만 엔	80만 엔
투자 대상 상품	· 장기 적립 · 분산투자에 적합한 일정 펀드 (금융청 기준을 충족한 펀드 한정)	일본 및 해외 상장주식·ETF·펀드·REIT 등※	일본 및 해외 상장주식·ETF·펀드·REIT 등※

※ ①정리·감리종목, ②신탁기간 20년 미만, 매월 분배형 펀드 및 파생상품 거래를 활용한 일정 펀드 등은 제외함.

자료: SBI증권. 2024.6.10.

인용: https://www.sbisec.co.jp/ETGate/WPLETmgR001Control?OutSide=on&getFlg=on&burl=search_nisa&cat1=nisa&cat2=info&dir=info&file=nisa_info221228_01.html

- 적립 NISA와 일반 NISA는 교차투자가 불가능하고 비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경직된 투자시스템임.
- 주니어 NISA는 당초 비과세 기간이 5년이었으나, 新 NISA 도입에 따른 개정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게 됨. 다만, 新 NISA로의 이관은 불가능함.
- 주니어 NISA는 제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예상보다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분석됨.¹²⁾
 - 주니어 NISA 계좌 수는 일반 NISA의 1/10, 적립 NISA의 1/8 수준으로 다른 NISA와 큰 차이를 보임.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점이 낮은 가입률에 영향을 미쳤음.

12) 미쓰비시UFJ은행. 2024.6.10. 인용: <https://x.gd/Zff4v>

- 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 외의 이유로 출금을 할 경우 과거 이익에 대해서까지 모두 과세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어 18세 전에도 출금할 수 있게 되었음. 단, NISA 자체를 해약해야 출금이 가능함.

2. 新 NISA의 특징

- 2024년 일본 정부는 NISA에 대한 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 구조를 단순화하고 절세혜택을 대폭 확대한 新 NISA를 선보임.
 - 우선 세 종류였던 NISA를 新 NISA 한 종류로 단순화하고, 그 안에 적립투자 한도와 성장투자 한도를 설정하여 각각의 한도 내에서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新 NISA 상세(적립투자 한도와 성장투자 한도 병용 가능) >

구 분	적립투자 한도	성장투자 한도
비과세 보유기간	무제한	
연간 투자 한도	120만 엔	240만 엔
비과세 보유 한도 (총액)	1,800만 엔	
	-	1,200만 엔(1,800만 엔 중 1,200만 엔까지 성장투자 한도로 사용할 수 있음)
투자 대상 상품	장기 적립·분산투자에 적합한 일정한 펀드 (금융청 기준을 충족한 펀드 한정)	일본 및 해외 상장주식·펀드 등※
대상 연령	18세 이상 일본 거주자	

※ ①정리·감리종목, ②신탁기간 20년 미만, 매월 분배형 투자신탁 및 파생상품 거래를 활용한 일정 펀드 등은 제외함.

주: 2023년말까지 적립 NISA 및 일반 NISA 계좌에서 투자한 상품은 2024년 1월 이후에는 구 NISA의 별도 계좌로 관리되고, 2023년까지의 NISA 제도 상 비과세 조치가 적용됨.

자료: SBI증권. 2024.6.10. 인용: https://www.sbisec.co.jp/ETGate/WPLETmgR001Control?OutSide=on&getFlg=on&burl=search_nisa&cat1=nisa&cat2=info&dir=info&file=nisa_info221228_01.html

- 新 NISA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 비과세인 점과 투자한도의 대폭 확대임.
 - 비과세 보유기간은 최대 5년 또는 20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비과세 기간이 종료되면 매도 또는 이관 절차를 밟아야 했던 구 NISA와 달리 번거로운 절차가 불필요해짐.
 - 연간 투자 한도는 40만 엔(적립 NISA)에서 120만 엔(적립투자 한도), 120만 엔(일반 NISA)에서 240만 엔(성장투자 한도)으로 확대됨. 구 NISA와 달리 적립투자 한도와 성장투자 한도를 병용할 수 있어 연간 최대 360만 엔까지 투자할 수 있음.
 - 또한 비과세 보유 한도(총액) 1,800만 엔이 신설되어 한도까지는 평생 비과세로 자산 운용이 가능함. 보유 상품을 매도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매도 상품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가 부활하여 다시 비과세 상품을 매수할 수 있음.

- 구 NISA는 **新 NISA와 별도 계좌로 운용함**. 구 NISA로 매수한 상품은 2024년 이후에도 비과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종료 후에는 ① 보유상품이 자동적으로 과세계좌로 옮겨지거나 ② 동일 금융기관에 자동적으로 **新 NISA 계좌가 개설됨**. **新 NISA 계좌가 개설되더라도 보유상품을 이관(롤 오버)할 수는 없음**.

< 新 NISA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

구 분	NISA 유형	내용
펀드	적립투자 한도, 성장투자 한도	주식형, 채권형, 밸런스형, 커모디티(commodity)형
국내주식	성장투자 한도	일본 국내 주식, J-REIT, 일본 국내 ETF
외국주식	성장투자 한도	해외 주식, 해외 ETF

주: 1. 밸런스형은 여러 자산에 균형감 있게 투자할 수 있고 고배당이 장점임.
2. 커모디티형은 금이나 원유 등의 상품시황에 투자함.

- 일본 주식과 미국 주식, 펀드, 해외 ETF 매매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투자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IV. 맺으며

- 2024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ISA 가입자 수는 511만 명**, 가입금액은 25조 3,604억 원으로 2020년 말에 비해 각각 2.6배, 3.9배 증가했으나,¹³⁾ **일본의 계좌 2,100만 개, 35조 엔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2024년 초 우리 정부는 ISA 활성화를 위해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한편 주니어 ISA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을 밝힌 바 있음. 2025년부터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ISA는 절세 대책으로 더욱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우리보다 앞서 ISA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제도 도입 10여 년 만에 투자구조를 단순화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한 **新 NISA를 출시하는 한편, 가입률이 저조한 주니어 NISA를 폐지함**.¹⁴⁾ 일본의 **新 NISA는 우리나라의 ISA에 비해 가입조건이 복잡하지 않은데다 ‘NISA의 날’을 지정하여 금융청과 업계단체가 新 NISA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¹⁵⁾

13) 연합뉴스포맷스. (2024.4.1). 밸류업 위해 ISA 혜택 더 늘린다... "日 끌어올린 NISA 뜯어보자".

14) 이코노미스트. '도입?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 전망 속 ISA 관심 고조... 투자 전략은

15) 일본정부홍보온라인. 2024.6.10. 인용: https://www.gov-online.go.jp/data_room/calendar/202402/event-2349.html#:~:text=2%E6%9C%8813%E6%97%A5%E3%81%AF,NISA%E3%81%AB%E5%A4%89%E3%82%8F%E3%82%8A%E3%81%BE%E3%81%97%E3%81%9F%E3%80%82



협안

외국에선? 발간 목록

- 일본의 新 NISA, 자산증식을 위한 평생 비과세제도
2024-11호(통권 제83호 2024. 6. 13.)
- 영국의 부담가능 주택정책
2024-10호(통권 제82호 2024. 5. 30.)
- 중동지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2024-9호(통권 제81호 2024. 5. 9.)
-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출범
2024-8호(통권 제80호 2024. 4. 16.)
-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2024-7호(통권 제79호 2024. 4. 4.)
-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
2024-6호(통권 제78호 2024. 3. 14.)
- JAX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2024-5호(통권 제77호 2024. 3. 7.)
- 대만 민진당 재집권과 동아시아 정세 변동
2024-4호(통권 제76호 2024. 2. 26.)
- 네덜란드의 농업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미래를 위한 노력
2024-3호(통권 제75호 2024. 1. 25.)
-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
2024-2호(통권 제74호 2024. 1. 18.)
-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2024-1호(통권 제73호 2024. 1. 4.)
- 프랑스의 유기농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2023-22호(통권 제72호 2023. 12. 21.)
- 2050년을 대비한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문샷(MoonShot)형 연구개발제도
2023-21호(통권 제71호 2023. 11. 23.)
- 영국의 여성폭력 대책: 문제 인식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2023-20호(통권 제70호 2023. 11. 9.)
- 중러북 협력과 한반도 외교안보
2023-19호(통권 제69호 2023. 10. 26.)
-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2023-18호(통권 제68호 2023. 10. 12.)
- 초고령사회 일본의 개호(간병) 분야 현황과 과제 - 노노(老老)개호와 개호난민을 중심으로
2023-17호(통권 제67호 2023. 9. 26.)
- 프랑스의 지방 중소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심활성화사업
2023-16호(통권 제66호 2023. 9. 14.)
-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2023-15호(통권 제65호 2023. 8. 24.)
- 캐나다의 이민을 통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정책
2023-14호(통권 제64호 2023. 8. 10.)
-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
2023-13호(통권 제63호 2023. 7. 27.)
-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
2023-12호(통권 제62호 2023. 7. 13.)
- 중국의 新국가전략: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
2023-11호(통권 제61호 2023. 6. 22.)
- 디지털랜드 핀란드: 디지털 나침반 계획과 정부개혁
2023-10호(통권 제60호 2023. 6. 15.)

